

韓國語와 日本語의 一字 漢字語에 관한 考察*

신민철**
mcshin68@hanmail.net

<目次>

- | | |
|----------------|------------|
| 1. 머리말 | 3. 一字 漢字語 |
| 2. 漢字語 調査 및 結果 | 3.1 非共通漢字語 |
| 2.1 調査 對象 | 3.2 共通漢字語 |
| 2.2 調査 基準 | 4. 맺음말 |
| 2.3 考察 | |

主題語: 한자어(Chinese-derived Words), 고유어(Native Words), 시소러스(Thesaurus), 어휘조사(Vocabulary Survey), 한문훈독법(Japanese Reading of Chinese Classics), 음절구조(Syllable Structure)

1. 머리말

단어의 집합으로서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단어의 빈도수와 사용률, 이어(異語)와 연어(延語) 등 수량적 측면에서는 어휘의 일반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어휘도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소수의 단어와 다수의 저빈도어,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많은 수의 최저빈도어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본어휘의 선정 등에 활용되어 왔다¹⁾. 한편 어휘의 어종(語種)별 구성을 통해서는 어떤 언어의 어휘가 외래 요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알 수 있으며, 어휘의 품사별 구성은 문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²⁾.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그 이상의 지적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가운데 다지마 이쿠도(田島籐堂) 씨에 의해 비교어휘연구(比較語彙研究)가 제창되어, 어휘의 비교를 통해 언어에 반영된 문화를 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종래의 어휘연구보다는 좀 더 자세한 어휘의 기술이 가능하게 되었다³⁾.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1) 田中章夫(1978), pp.29-35

2) 樺島忠夫(1954), pp.15-20, 樺島忠夫(1955), pp.55-57, 大野晋(1956), pp.34-46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비교어휘연구에서는 언어구조에 의한 차, 어종(語種)에 의한 차, 문화에 의한 차 등이 지적되었다. 그 중 어종(語種)에 의한 차는 혼종어(混種語)까지 포함하면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한자어(漢字語)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이에 양 언어의 한자어(漢字語)에 주목하여 언어체계 전체에 있어서 한자어의 사용 양상, 서로의 유사점과 상이점, 상호 영향 관계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한일 국어사전의 한자어 조사를 완료하고 공통한자어와 비공통한자어에 대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자어의 단어 길이별 구성을 토대로 자세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본고에서는 一字 漢字語를 대상으로 양 언어에 각각 어떠한 특징이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 전에 지금까지의 한자어 조사 과정 및 분석 결과를 정리하도록 한다.

2. 漢字語 調査 및 結果

본격적인 한자어 비교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먼저 신민철(2012)에서는 한자어의 조사 대상 선정과 기준 설정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사전의 규모와 표제어 수록 방식 등의 차이 때문에 동등하고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신민철(2014)에서 조사 대상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조사 기준도 약간 수정하였다. 또한 申玟澈(2016)에서는 국어사전을 대상으로 한 한자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였으나, 이후 기술적인 문제로 조사결과 및 통계수치에 오류가 발견되어 재조사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신민철(2017)에서 전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 23,653語, 일본어 31,587語의 한자어가 각각 조사되었는데, 그 중 공통한자어는 12,450語, 비공통한자어는 한국어 11,203語, 일본어 19,137語로 나타났다. 그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양 언어의 언어체계 전체에서 운용되고 있는 한자를 대상으로 비교를 행하고자 각각의 언어에서 시소러스(thesaurus)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표준적인 국어사전을 대상으로 한자어를 추출하기로 하였다.

3) 申玟澈(2009), pp.10-14 참조

4) 申玟澈(2009), pp.75-172 참조

2.1 調査 対象

한국과 일본의 사전 발간 년도가 별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가급적 최신의 것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생각에서 각각 『옛센스 국어사전(제6판 전면개정판)』(민중서림, 2006)과 『新明解国語辞典(第七版)』(三省堂, 2012)을 대상으로 한자어 조사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어는 「가」항, 일본어는 「あ」항까지만 조사하여 비교를 시도하였다. 표제어 수에서 한국어 16만 여, 일본어 7만 7천 5백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한국 국어사전이 일상어뿐만 아니라 전문어와 복합어까지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는 편찬 방침의 차이가 있었지만, 조사 기준을 잘 설정하면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국어 쪽에 전문어뿐만 아니라 ‘가가문전(家家門前), 가가호호(家家戶戶), 가감부득(加減不得), 가감지인(可堪之人), 가거지지(可居之地), 가롱성진(假弄成眞), 가부득감부득(加不得減不得), 가부취결(可否取結), 가이동가이서(可以東可以西), 가취지례(嫁娶之禮),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등과 같은 한문 어구(語句)나 문(文)으로 이루어진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불균형 때문에 한자어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민철(2014)에서는 한국어 쪽의 사전을 『연세한국어사전』(두산동아, 1998)으로 교체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세한국어사전』은 ‘연세 말뭉치’(약 4,300만 어절. 보통 책으로 약 18만 쪽의 분량)에서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14번 이상 나타나는 낱말(단어 및 문법 형태소) 약 5만 개를 표제어로 삼고 있다. 이 표제어들은 다양한 언어자료의 어휘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용율도 높아 기본어휘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新明解国語辞典』의 편집 방침 첫머리에 ‘この辞典は、現代の言語生活において最も普通に用いられる日本語について、その多岐にわたる用法を種種の角度から分析・検討し、的確な理解の一助となるとともに、適切・効果的な使用が可能であることを念じて編集された。(이 사전은 현대의 언어생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어에 대하여, 그 다기에 걸친 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검토하여 정확한 이해의 일조가 됨과 동시에 적절·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집되었다.)’⁵⁾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수록된 표제어의 성격은 한국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록어수는 『新明解国語辞典』 쪽이 더 많은데 초판(1972) 이래로 수록어수를 함부로 늘리기보다는 표제어에 관한 다양한 정보(語義, 文法, 用法 등)를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방침으로 편집을 해오고 있어 한자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5) 밑줄 필자.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第7版은 第6版(2005年 發行)보다 새롭게 1,000語가 증보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외래어나 일본제 영어(和製英語)라고 한다.

상기 두 사전은 발간 년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표제어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어휘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수록어수의 차이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서 적합하리라 본다.

2.2 調査 基準

실제로 어휘조사를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지므로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에서는 국립국어연구소가 신문, 잡지, 교과서 등을 대상으로 일련의 어휘조사를 행하면서 여러 조사 단위를 실천했다. 조사·조동사와 같은 부속어나 기호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 복합어를 그대로 조사 단위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해 나누어지며 긴 단위로서는 장(長)단위, α단위, W단위, 짧은 단위로는 단(短)단위, β단위, M단위가 있다(田中, 1978).

그러나 본고는 어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의 표제어 중에서 한자어를 추출해 내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조사 단위라고 하기 보다는 어떠한 것을 한자어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에서는 한자로 표기 가능하고 음독(音讀)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한어(漢語)라 부르고, 음(音)(「자음(字音)」이라고도 함)으로 읽는다고 해서 자음어(字音語)라고도 한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한자어(漢字語)라는 용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하나의 용어만으로는 양쪽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기로 한다. 단 ‘すかんぴん[素寒貧], すてき[素敵·素適], とんちんかん[頓珍漢]’ 등과 같은 일본어의 「宛字」는 한자로 표기하고 음으로 읽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한자어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한자와 단어 사이에 의미적 연관성이 없거나 낮으므로 조사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또한 ‘あほう[阿呆·阿房], むちや[無茶], むてつぼう[無鉄砲], めった[滅多], めんどう[面倒], やじ[野次·弥次]’ 등과 같은 차자(借字) 표기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조사에 임해서는 편의를 위해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며 어느 정도 자립성이 인정되는 한자어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따라서 일본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는 ‘家(け), 御(ご), -中(じゅう)’ 등과 같은 접사(接辭)는 제외가 되는 것이다. 그밖에 품사가 복수인 한자어, 표기가 복수인 한자어, 발음이 복수인 한자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① 품사가 복수인 한자어

한국 국어사전에는 ‘가급적(可及的), 내향적(內向的), 도덕적(道德的), 모범적(模範的), 법률적(法律的), 사회적(社會的), 자발적(自發的)’ 등과 같이 ‘~적(的)’의 구성을 갖는 한자어가 명사와 관형사로서 2개의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국(結局. 명사/부사), 다소(多少. 명사/부사), 택(宅. 명사/대명사), 만약(萬若. 명사/부사), 본래(本來. 명사/부사), 소인(小人. 명사/대명사), 안녕(安寧. 명사/감탄사), 전부(全部. 명사/부사), 지금(只今. 명사/부사), 하등(何等. 명사/부사)’ 등과 같은 한자어도 각각의 품사가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품사는 통사 또는 용법에 의한 구분이고 의미상 차이는 없으므로 한자어로서는 하나로 인정하기로 한다.

② 표기가 복수인 한자어

일본 국어사전에는 표제어 하나에 한자 표기가 복수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용한자(常用漢字)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본 정부는 표기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 대신에 익히고 쓰기에 비교적 용이한 한자를 상용한자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현대 일본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2,136字가 선정되어 있다⁶⁾. 따라서 원래 한자어에 상용한자 이외의 한자가 들어있는 경우 대부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자 표기를 해결하고 있다. 먼저 ‘あんしょう(暗唱·暗誦), いしゃ(慰謝·慰藉), かいり(海里·海裡), けいりゅう(係留·繫留), たいとう(台頭·擡頭), たいしょく(褪色·退色)’ (밑줄 친 한자가 상용한자 이외의 한자. 이하 같음) 등과 같이 음(音)이 같으면서 유사한 의미를 갖는 한자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いっしょ(逸書·佚書), きんよく(禁欲·禁慾), くんか(訓戒·訓誡), ざぜん(座禪·坐禪), しせき(史跡·史蹟·史迹), せんか(旋回·旋廻), せんれん(洗練·洗煉), だいきょう(大凶·大兇), たんせい(嘆声·歎声)’ 등과 같이 상용한자 이외의 한자와 동자(同字), 통자(通字), 또는 이형동의자(異形同義字)를 이용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 국어사전에도 ‘개탄(慨歎·慨嘆), 근저(根柢·根底), 기별(奇別·寄別), 논고(論考·論攷), 독배(毒杯·毒盃), 목면(木棉·木綿), 병설(竝設·併設), 영수(領收·領受), 주석(註釋·注釋), 퇴색(退色·褪色), 편지(便紙·片紙), 폭발(爆發·暴發), 행적(行蹟·行績)’ 등과 같이 한자 표기가 복수인 표제어가 있는데 일본 국어사전과 마찬가지로 동자(同字), 통자(通字), 이형동의자(異形同義字)가 쓰이고

6) 『ウィキペディアフリー百科事典』(<https://ja.wikipedia.org/wiki/>)참조. 상용한자(常用漢字)에 대하여 「法令、公用文書、新聞、雑誌、放送など、一般の社会生活において、現代の国語を書き表す場合の漢字使用の目安(법령, 공용문서, 신문, 잡지, 방송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 현대 국어를 표기하는 경우의 한자 사용의 표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전에서는 이들 한자 표기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나 한자어로서는 하나
이므로 그 각각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는다.

③ 발음이 복수인 한자어

‘惡貨(あくか・あつか), 各界(かくかい・かつかい), 劍客(けんきやく・けんかく), 國家(こく
か・こつか), 砂金(しゃきん・さきん), 十戒・十誠(じゅっかい・じっかい), 人文(じんもん・じん
ぶん), 青龍(せいりゅう・せいりょう), 重任(ちょうにん・じゅうにん), 適期(てき・てつき),
登攀(とはん・とうはん), 末子(ばっし・まっし), 白夜(びやくや・はくや), 反故(ほうぐ・ほうご・
ほぐ・ほご), 法主(ほうしゅ・ほっしゅ・ほつす), 乱行(らんこう・らんぎょう), 良家(りょうか・
りょうけ)’ 등의 한자어는 보는 바와 같이 발음이 복수인데 각각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또한 ‘異名(いめい, 「いみょう」의新しい語形), 榮耀(えよう, 「えいよう」의古語的表
現), 吉日(きちじつ, 「きちにち」의新しい言い方), 氣味(きび, 「きみ」의古形・方言形), 見聞(けん
もん, 「けんぶん」의古風な表現)’ 등과 같이 새로운 어형(語形), 고어적(古語的) 표현이나
형태, 방언형(方言形)이 원래의 형태와 더불어 표제어로 실려 있다. 그러나 이들 한자어는
의미상 변화는 없으므로 하나의 한자어로 보기로 한다.

2.3 考察

상기의 기준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어는 23,653語, 일본어는 31,587語가 각각 조사
되었다. 재조사 과정에서 ‘모의(謨議→謀議), 비준(比準→批准), 이율(利律→利率), 적갈색
(赤葛色→赤褐色), 절세(絶稅→節稅), 증가분(増價分→增加分), 증가세(増價勢→増加勢),
증가액(増價額→増加額), 증가율(増價率→増加率), 초인종(超人鐘→招人鐘)’ 등 『연세한
국어사전』의 한자어 표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하였고, 일본어의 한자어에 대해서도
약간의 표제어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공통한자어는 12,450語, 비공통한자어는 한국어
11,203語, 일본어 19,137語로 조사되었다. 이들 한자어에 대하여 단어의 길이별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통한자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一字 漢字語로서 자립어인 단어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二字 漢字語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한자어
의 구성이 二字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三字와 四字 漢字語에는 二字 漢字語의
二次 結合에 의한 파생어와 복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五字, 六字로 글자 수가 늘어날수
록 그 비율은 떨어졌으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전문용어가 많이 나타났다.

한편 비공통한자어에 대하여 각각의 언어에 특징적인 한자어를 간단히 살펴본 결과 一字 漢字語, 한자어 부사, 한자성어(漢字成語) 등을 통하여 한국어가 일본어에 비해 한자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의 비공통한자어에는 각 언어의 역사, 정치, 식문화, 전통 예술과 예능, 사회, 종교 등 양국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한자어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一字 漢字語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一字 漢字語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을 행하여 한일 양 언어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一字 漢字語란 一字로서 자립어 또는 부속어로서의 용법을 갖는 漢字語이다. 구체적인 예는 분석을 해 나가면서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본고가 조사한 한자어 중 양쪽 언어에 들어있는 것은 공통한자어, 어느 한쪽 언어에만 들어있는 것은 비공통한자어로 구분해서 고찰을 진행한다. 一字 漢字語 중 공통한자어는 370語, 비공통한자어는 한국어 238語, 일본어 451語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번 분석 과정에서 「卵」이라는 한자어가 비공통한자어로 각각의 언어에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공통한자어는 371語, 비공통한자어는 한국어 237語, 일본어 450語로 통계수치를 수정한다.

3.1 共通漢字語

먼저 공통한자어에 대하여 보도록 한다. 공통한자어에는 ‘零, 一, 二, 三·參, 四, 伍, 五, 六, 七, 八, 九, 十, 百, 千, 萬(万), 億, 兆, 京’(18語. 괄호 안은 일본식한자, 이하 같음.)와 같은 수사와 ‘刊, 間, 個, 科, 課, 校, 區(区), 具, 舊(旧), 局, 群, 君, 卷, 景, 期, 兩(兩), 年, 單(单), 當(当), 對(对), 臺(台), 同, 頭, 斗, 等, 滿(滿), 枚, 某, 發(發), 杯, 番, 別, 社, 師, 報, 步, 分, 朔, 席, 純, 氏, 約, 譯(訳), 翁, 人, 字, 作, 著, 全, 錠, 條, 調, 卒, 尺, 秒, 燭, 寸, 通, 篇(編), 項, 號(号), 回’(62語)와 같이 항상 의존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인데, 단위나 구분을 나타내는 말, 접두어나 접미어 등이 들어 있다.

나머지 291語의 공통한자어는 자립어로서의 용법을 갖는 것들이다. 아래에 제시한다.

可角刻感甲鋼客坑件劍(劍)劫格缺(欠)經(經)更卿戒·誠計曲
 功空公管棺冠官卦球句軍郡軌菌劇極根金級氣(氣)樂(樂)
 亂(亂)蘭欄卵男櫓爐(爐)祿(祿)膿腦(腦)累陵段短壇膽(胆)痰黨(黨)
 堂糖代大隊宅德(德)度道毒銅得籐理魔膜幕灣(灣)脈面綿
 命木目妙武無門文美拍班半反胚倍白罰法邊(辺)變(變)辨(弁)
 瓶(瓶)兵丙福服本棒封否部盆比碑死酸賞相像上想商色
 生署錫釋(釈)線先善禪(禪)膳說(說)性姓城勢稅(稅)小屬(屬)孫
 數(數)秀壽(壽)順僧詩市式神臣失實(實)室心惡(惡)案癌額厄
 液野藥(藥)量陽良孃業女驛(驛)逆役聯(連)緣(緣)熱列貂念靈(靈)
 令例禮(禮)玉獄王倭優愚運韻員圓(円)願胃有類肉律銀乙
 音陰義利仁印章場腸長將(將)在財敵籍前甄埤磚錢(錢)節
 點(點)情丁種左座主州週中卽(即)證(証)職陣眞(眞)質(質)帙膾
 朕茶差妻鐵(鐵)妾廳(庁)草村銃醜軸忠層他塔態土派版霸·霸
 敗便評肺弊砲幅表票風筆下合害解核行幸香虛(虛)弦(弦)
 縣(縣)穴兄刑弧壕會(會)灰畫(畫)孝後訓興

위의 단어들 중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자립어가 있는 반면 자립어로서는 위화감이 있는 것도 있다. 특징적인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어와 일본어 양쪽에 있기는 하지만 ‘極, 卦, 盆, 服, 商, 錫, 釋(釈), 野, 孃, 藥(藥), 肉, 穴’ 등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다. 한편 ‘膿, 累, 白, 妻, 妾, 兄’ 등의 한자어는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인 한자어이지만 일본어에서는 漢語의 表現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劫, 戒·誠, 業’은 불교 관련 용어, ‘根, 卵, 計, 解’는 수학, 생물학 관련 용어, ‘秀, 優, 良, 可’는 평가 등급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刻, 甲, 更, 卦, 木, 丙, 乙, 丁, 土’ 등은 陰陽五行과 관련이 있는 말이다. 이와 같이 공통한자어에는 전문용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可·否, 男·女, 得·失, 美·醜, 生·死, 上·下, 善·惡(惡), 虛(虛)·實(實), 長·短, 前·後, 大·小, 陰·陽, 有·無, 忠·孝’ 등은 反意語 또는 關聯語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一字 漢字語의 성립이 용이하다는 것은 한일 양 국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고 있다.

3.2 非共通漢字語

비공통한자어 중 먼저 한국어에만 있는 한자어를 보기로 한다. 다음 68語는 본고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일본 국어사전에는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지 않아 비공통한자어로 분류되어 있지만 일본어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한자어들이다.

各 綱 傑 兼 界 故 榔 貫 教 國 斤 己 基 團 輻 里 厘 釐 末 每 麵 名 民
 泊 犯 便 伏 鳳 弗 妃 嬪 私 喪 石 歲 疏 束 首 瑟 乘 勝 時 雙 位 率
 絨 誼 理 日 箏 挺 挺 劑 諸 足 從 贈 辰 輯 着 隻 貼 總 打 胎 匹 疋 絃
 現 戶

‘榔 麵 絨 箏 胎 妃 嬪 私 喪 瑟 絃’ 등을 제외하면 단위나 구분을 나타내는 말, 접두어나 접미어이거나 ‘教(宗教), 鳳(<鳳凰)>와 같은 줄임말이다. 위의 한자어를 제외한 다음 169語가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것들이다.

脚 肝 匣 岬 江 怯 絹 契 係 哭 供 過 光 窟 宮 勸 闕 櫃 橋 近 旗 起
 南 內 冷 綠 弄 籠 丹 但 答 東 棟 燈 藤 麻 馬 望 網 梅 母 墓 墨 訴
 墨 房 榜 放 壁 病 襦 狀 峰 父 富 北 粉 憤 忿 山 煞 蓼 床 西 貫 沼 者
 手 繡 筍 羊 胖 與 薦 蓮 延 殮 永 外 辱 茸 右 羽 怨 月 潤 邑 揖 津
 盞 櫪 醬 張 災 齋 炙 笛 赤 煎 塵 占 接 祭 組 鐘 縱 罪 株 粥 汁 津
 車 次 饌 站 窓 槍 唱 冊 責 處 青 請 醋 初 鏃 鍾 縮 側 齒 針 向
 炭 彈 頤 貪 湯 吐 桶 統 套 板 牌 坪 脯 包 標 楓 鶴 恨 限 割 函
 形 型 或 魂 禍 黃 膾 橫 諱 黑 欠

위의 한자어 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脚, 肝, 岬, 江, 怯, 絹, 契, 係, 過, 光, 宮, 勸, 橋, 旗, 南, 但, 答, 東, 棟, 燈, 藤, 麻, 馬, 網, 梅, 母, 墓, 墨, 壁, 病, 峰, 父, 富, 北, 粉, 憤, 忿, 山, 床, 西, 沼, 手, 羊, 薦, 蓮, 延, 右, 羽, 怨, 者, 災, 笛, 赤, 占, 祭, 鐘, 縱, 罪, 株, 粥, 汁, 車, 窓, 槍, 青, 醋, 鏃, 鍾, 縮, 側, 齒, 針, 炭, 湯, 桶, 坪, 楓, 鶴, 恨, 限, 割, 向, 形, 型, 或, 魂, 禍, 黃, 膾, 橫, 諱, 黑’ 등과 같이 일본어에서는 고유어(和語)가 대응하는 한자어들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세력에 밀려 고유어가 위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은 선행논문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여기에 다시 한 번 기술하도록 한다.

일본어의 경우, 한국어보다 이른 시기에 한자로부터 독특한 가나(仮名) 문자를 고안해 내(10세기 경 성립), 고유어를 적을 수 있는 표기 수단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에 따라 일본의 독자적인 한문훈독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고유어의 세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한자의 음훈(音訓)을 이용한 표기법인 향찰과 이두가 고안되었지만 고유어를 표기하기에는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이 창제·반포되지만(A.D.1446), 그 후로도 한자어는 계속 증가한다. 그 배경에는 한문 숭배 사상이 있다. 한국어에 있어서 한자어가 본격적으로 발달, 정착하는 것은 신라

후기(10세기 초)부터인데,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과거제도와 유교주의적 정치를 표방해서 실시하게 되며 사장(詞章)중심, 문예중심의 경향이 나타난다. 그 때문에 이 시기에 한문학이 절정에 달해 귀족 사회에서는 한문만으로 일상생활이 영위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또한 유교적인 생활양식이 강요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어가 일반 민중에게까지 보급되어 그 보편화가 촉진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어 고유어의 세력이 위축된 것이다(朴英燮1986).

다음은 일본어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한자어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다.

压	庵	緯	意	易	域	閼	院	因	鬱	益	塩	冤	応	果	化	我	快	垓	萼	喝	簡
疳	款	觀	缶	艦	龕	忌	機	議	菊	笈	牛	境	筋	琴	吟	苦	偈	徑	啓	桂	系
罨	橄	決	鍵	堅	權	元	玄	舷	孤	講	稿	高	効	候	剛	郷	毫	骨	犀	才	采
柵	策	札	算	贊	讚	殘	斬	史	士	子	資	辞	痔	地	射	紗	邪	爵	朱	頌	綬
周	洲	柔	宗	術	旬	舜	書	所	序	笙	莊	鉦	衝	丞	信	新	箴	水	髓	是	正
精	制	積	選	漸	素	祖	曹	息	俗	賊	損	題	体	卓	斷	知	智	築	町	疔	寵
底	的	篆	軫	天	伝	徒	都	胴	筒	尿	任	能	破	拝	箔	漠	藐	跋	煩	藩	判
盤	秘	非	微	廟	品	譜	婦	府	負	賦	複	物	糞	癖	冪	偏	補	方	苞	坊	僕
没	歿	凡	蜜	明	銘	紋	葯	勇	雄	余	様	癱	要	庸	翼	雷	陸	率	略	呂	料
鈴	誅	罌	聯	蠟	樓	論	把														燐

위에 제시한 206語의 한자어는 본고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한국 국어사전에는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한국어에도 존재하는 한자어들이다. 그러나 그 중 ‘簡, 桂, 堅, 玄, 采, 卓, 都, 藩, 判, 凡, 陸’은 성(姓)으로 쓰이는 것들이라 일반적인 단어라 볼 수 없다. 또한 ‘压, 庵, 緯, 域, 冤, 果, 快, 艦, 龕, 境, 橄, 稿, 効, 斬, 呪, 術, 序, 衝, 精, 題, 斷, 寵, 胴, 跋, 品, 譜, 勇, 樓’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대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주로 ‘壓力, 庵子, 緯度, 境域, 怨恨, 結果, 快感, 軍艦, 龕室, 地境, 橄文, 草稿, 效驗, 斬刑, 呪文, 術數, 序文, 衝車, 題目, 決斷, 寵愛, 胴體, 跋文, 品質, 樂譜, 勇氣, 樓閣’ 등과 같이 二字漢字語로 쓰이게 된다. 한편 ‘意, 我, 觀, 機, 宗, 明’는 한국어에서는 불교용어로 쓰이는 것들이다. 그리고 ‘徑, 算, 殘, 積, 底, 冪’은 수학 관련 용어인데, 한국어에서는 ‘지름, 셈, 나머지, 곱, 밑, 거듭제곱’으로 순화되어 거의 사어(死語)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한자어도 역사, 천문, 민속, 음악, 한의학, 미술, 식물, 생물 등의 분야에서 쓰이는 특수한 용어들이 많다.

상기 이외에 일본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244語의 한자어를 아래에 제시한다.

暗 餽 威 医 夷 異 逸·佚 淫 飲 繪 纓 詠 嬰 榮 裔 謁 悅 閱 宴 嫗 屋 恩
 佳 寡 華 駕 蛾 賀 怪 隗 楷 概 該 樂 學 渴 活 奸 癩 勘 寬 爛 完 寒
 閑 盱 鑑 飲 眼 雁 季 奇 記 妓 技 儀 吉 柁 灸 弓 急 居 渠 炬 拳 強
 凶 堯 禁 警 芸 隙 臄 見 券 拳 妍 險 減 言 嚴·儼 驗 碁 語 交 巧 酷 紺
 細 際 最 材 索 雜 産 棧 燦 慘 讒 刺 梓 持 食 直 識 斜 舍 蛇 酌 癩
 杓 弱 寂 衆 集 住 宿 塾 出 述 駿 暑 恕 緒 称 状 冗 定 帖 識 親 寢
 圖 粹 蒞 靜 贅 切 癰 拙 緘 栓 詮 撰 粗·麤 裝 壯 躁 象 藏 增 仄 栗 統
 帥 多 端 嘆·歎 暖 談 治 宙 誅 耐 蝶 朝 徵 超 勅 亭 珍 低 呈 艇 弟 轍
 典 電 堵 途 臺 刀 動 咄 豚 鈍 難 繞 農 霾 貝 縛 鉢 撥 髮 閎 範 晚
 鷗 婢 緋 霰 豹 鉞 敏 鬢 腑 訃 麩 副 塤·屏 袍 亡 暴 密 盟 滅 蒙 友 尤
 洋 瘍 用 幼 慾 癩 埒 力 涼 獺 領 了 寮 漁 隸 紹 鱸 鑣 廊 勞 隴 牢
 陸·碌 碗·碗 鉤

위의 한자어들은 조어성분(造語成分)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독립어로서의 용법을 갖는 것들이다. 그 중 ‘淫, 怪, 渴, 奸, 奇, 記, 吉, 灸, 急, 居, 強, 凶, 禁, 險, 減, 嚴·儼, 巧, 際, 直, 弱, 称, 定, 帖, 親, 切, 拙, 壯, 躁, 動, 鈍, 難, 暴, 滅, 蒙’ 등은 한국어에서는 ‘○하다’의 구조를 갖는 용언의 어근에서 확인된다. 그 밖의 一字 漢字語는 일본어에 고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는 한국어에 비해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된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도 한국어보다 많은 一字 漢字語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먼저 일본어에서는 한문을 한국어처럼 음으로 읽고, 뜻을 새기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한문훈독법을 개발하여 읽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一字 漢字語가 다수 존재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용구와 속담에도 다수의 一字 漢字語가 보인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虎の威を借る狐 | ·衣冠に至る |
| ·夷をもって夷を制す | ·朱に交われれば赤くなる |
| ·意に介しない | ·柔よく剛を制す |
| ·逸を以て勞を待つ | ·精中、動あり |
| ·悅に入る | ·幼にして學に長じ |
| ·寡をもって衆に当たる | ·隴を得て蜀を望む |
| ·隗より始めよ | |

또한 일본어의 음절구조상 漢字 한 자(字)는 한국어에서는 1음절인 반면 일본어에서는 2음절로서 한국어보다는 안정성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언어체계 전체에 있어서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자어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一字 漢字語를 대상으로 양 언어에서 각각 어떠한 특징이 보이는가를 밝히기 위해 자세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공통한자어에는 수사, 단위나 구분을 나타내는 말, 접두어나 접미어 등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의 공통한자어로는 불교, 수학, 생물학 등과 관련한 전문용어, 평가 등급을 나타내는 말, 음양오행과 관련이 있는 말 등이 있었다. 또한 反意語나 關聯語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 一字 漢字語의 성립이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비공통한자어로서 한국어에만 있는 한자어 중에는 일부 일본어에도 존재하는 한자어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고유어(和語)가 대응하는 한자어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세력에 밀려 고유어가 위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어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한자어를 보면 한국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성(姓)으로 쓰이는 것, 약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 불교용어, 거의 사어(死語)가 된 수학 관련 용어 등 특수한 용어들이 많다. 그 밖에 일본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一字 漢字語 중에는 한국어에서는 ‘○하다’의 구조를 갖는 용언의 어근에서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본어에 고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가 한국어에 비해 一字 漢字語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일본의 독자적인 한문혼독법과 음절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一字 漢字語의 자세한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앞으로 二字 이상의 한자어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參考文獻】

- 朴英燮(1986)『國語 漢字語의 起源的 系譜 研究-現用 漢字語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10
- 申玟澈(2009)『日本語と韓国語の語彙比較研究』어문학사, pp.10-14, pp.75-172
- _____(2012)『韓國語와 日本語의 漢字語 比較-조사 대상 및 기준 설정을 중심으로-』『日本語學研究』第35輯, 韓國日本語學會, pp.209-221
- _____(2014)『한일 국어사전의 한자어 조사 및 비교 고찰』『韓日語文論集』第18輯, 韓日日本語日文學會, pp.19-32
- _____(2016)『韓日 兩國 國語辭典의 漢字語 調査 傾向分析』『日本文化學報』第70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p.119-135

- _____(2017)「韓國語와 日本語의 漢字語 比較研究-調査結果에 대한 考察-」『日本近代學研究』第55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101-116
- 大野晋(1956)「基本語彙に関する二三の研究-日本の個展文学作品に於ける-」『国語学』24、pp.3-46
- 樺島忠夫(1954)「現代文における品詞の比率とその増減の要因について」『国語学』18、pp.15-20
- _____(1955)「類別した品詞の比率に見られる規則性」『国語国文』、pp.5-57
- 田中章夫(1978)『国語語彙論』明治書院, pp.29-35、pp.39-43
- 『연세한국어사전』(두산동아, 1998)
- 『新明解国語辞典(第七版)』(三省堂, 2012)

논문투고일 : 2017년 12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18년 02월 09일
 2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2월 19일

 <要旨>

韓國語와 日本語의 一字 漢字語에 관한 考察

신민철

본고에서는 一字 漢字語를 대상으로 양 언어에서 각각 어떠한 특징이 보이는가를 밝히기 위해 자세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공통한자어에는 수사, 단위나 구분을 나타내는 말, 접두어나 접미어 등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의 공통한자어로는 불교, 수학, 생물학 등과 관련한 전문용어, 평가 등급을 나타내는 말, 음양오행과 관련이 있는 말 등이 있었다. 또한 反意語나 關聯語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 一字 漢字語의 성립이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비공통한자어로서 한국어에만 있는 한자어 중에는 일본어에서는 고유어(和語)가 대응하는 한자어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세력에 밀려 고유어가 위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어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한자어를 보면 한국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성(姓)으로 쓰이는 것, 약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 불교용어, 거의 사어(死語)가 된 수학 관련 용어 등 특수한 용어들이 많다. 그 밖에 일본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一字 漢字語 중에는 한국어에서는 ‘○하다’의 구조를 갖는 용언의 어근에서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본어에 고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가 한국어에 비해 一字 漢字語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일본의 독자적인 한문혼독법과 음절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ome Considerations on one Chinese-character Words of Korean and Japanese

Shin, Min-Chul

In this paper,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in detail to find out each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Japanese in one Chinese-character Words. As a result, there are numeral, words representing unit or section, prefix, suffix, etc. Chinese-derived words in both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Also there are technical terms related with Buddhism, mathematics, biology, words representing evaluation grade, words related with Yin-Yang School, etc. And also we confirmed that one Chinese-character Word tends to come into existence from antonym, synonym, etc.

Meanwhile, many of one Chinese-character words only in Korean have original Japanese as its counterparts. It is the result that original Korean words were forced to lose power under the influence of Chinese words. And then, some Korean counterparts of one Chinese-character words only in Japanese are words representing family name, abbreviation, technical terms related with Buddhism or mathematics, etc. But, several words already has become obsolete. Some other one Chinese-character words only in Japanese are found in etymons of ‘-하다(hada)’. The rest are Japanese indigenous words. In comparison with Korean language, there are more one Chinese-character words in Japanese language. It is considered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Japanese reading of Chinese Classics and syllable structure.